

“광주 여자양궁 올림픽 금메달 계보 잇겠다”

초고급 양궁 선수 오예진 광주여대 입학

고2 때 첫 태극마크 달아...기보배·최미선·안산 이을 '차세대 스타' 쟁쟁한 성인 선수들 제치고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1차 선발전 통과 김성은 감독 "기초 탄탄하고 큰 경기에 강해 파리올림픽까지 기대"

초고급 양궁 선수 오예진(19·울산스포츠과학고)이 광주여대에 입학했다.

그는 쟁쟁한 성인 선수들을 제치고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1차 선발전을 5위로 통과한 차세대 스타다. 광주여대는 대한민국 양궁을 대표하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기보배, 최미선, 안산의 뒤를 이을 선수라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광주여대 양궁장에서 광주일보와 만난 오예진은 "광주여대 입학은 오래전부터 꿈꿔온 목표였다"며 "광주 여자양궁 올림픽 금메달 계보를 잇고 싶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활을 잡은 오예진은 작고 왜소한 체격에 중학교 시절까지 평범한 선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매년 키가 10cm씩 자라면서 기량이 급상승했다. 근력과 체격까지 동반상승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았다.

지난해에는 대통령기 전국양궁대회 4관왕, 전국체전 2관왕에 올랐다. 국가대표로 첫 출전한 국제대회(아시아양궁선수권)에서는 유수정(현대백화점)·임혜진(대전시체육회)과 팀을 이뤄 단체전 금

메달을 일궜다.

오예진의 강점은 사대에서 실수하더라도 쉽게 털어내며 자신만의 루틴으로 경기를 이끌어가는 대담함이다.

김성은 광주여대 감독과 만남은 광주여대 진학의 계기가 됐다.

그는 대통령기 전국양궁대회 참가를 위해 광주여대에서 훈련하는 오예진을 보고 잠재력을 확인했다.

김 감독은 "활을 잘쏘지 못하는데도 긴장하거나 쫓기지 않고 자신의 루틴을 유지하는 담대함이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당시 지도하던 코치에게 '예진이가 당장 좋은 성적을 못 내더라도 광주여대에서 키워보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결국, 광주여대 진학을 내심 바랐던 코치와 예진의의 희망이 맞아 떨어지면서 광주행이 결정됐다고 한다.

오예진은 현재 국가대표 양궁 동계훈련에 참가해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는 "항상 초심으로 하나하나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며 "아시안게임이라는 눈앞의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준비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여대 양궁장에서 훈련하고 있는 오예진.

했다.

팀 동료이자 우상인 안산은 선의의 경쟁자이자 '남아야 할 산'이다.

오예진은 "산이 언니의 장점인 대범함과 집중력을 가까이서 보고 배울 수 있어 선수로서 기쁘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큰 경기에 강한 예진은 올림픽라운드에서 최적화된 선수"라며 "속사 능력이 탁월하고, 기초가 탄탄한 만큼 단점으로 꼽히는 체력만 끌어올린다면 올해 아시안게임은 물론 2024 파리올림

픽까지 충분히 기대할만한 선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산, 김민서, 오예진이 포진한 올해 광주여대는 국내대회 뿐만 아니라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좁고 짧은 코스 "딱이야" 임성재 시즌 '2승 사냥'

PGA 소니오픈 14일 개막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새해 첫 대회에서 공동 8위에 올라 첫 단추를 잘 끼운 임성재(24)가 시즌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임성재는 14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의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파70)에서 열리는 PGA투어 소니오픈(총상금 750만 달러)에 출전한다.

2021-2022시즌 들어 4개 대회 연속 20위 이내에 이름을 올려 안정된 경기력을 과시한 임성재는 PGA투어닷컴이 예상하는 우승 후보 15명 가운데 5위에 꼽힐 만큼 우승 기대가 높다.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 코스는 임성재의 경기 스타일과 잘 맞는다.

지난주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가 열린 카팔루아 플랜테이션 코스는 페어웨이가 넓고 길어 장타자의 놀이터라면, 와이알레이 컨트리클럽은 전장이 짧은 대신 페어웨이가 아주 좁다.

지난 10년 동안 치러진 소니오픈 평균 페어웨이 안착률이 55%에 불과하다. 굳이 드라이버를 잡지 않아도 되는 파 4홀이 많다. 한마디로 아이언샷을 잘 치는 선수가 유리하다는 뜻이다.

임성재는 PGA투어 그린 적중률 12위(76.38%)에 올라 있을 만큼 아이언을 잘 다룬다.

지난해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오픈에 이어 시즌 2승을 노리는 임성재는 "스윙을 바꿨는데 실수가 줄고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세계랭킹 1~9위가 출전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호재다.

온 람(스페인), 콜린 모리카와, 더스틴 존슨, 패트릭 캔틀레이, 저스틴 토머스, 잔더 쇼펠레, 브라이언 디셈보(이상 미국),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 등이 모두 소니오픈을 건너뛴다. 디셈보는 애초 출전할 예정이었으나 손목 부상으로 기권했다.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우승자 캐머런 스미스(호주)가 세계랭킹 10결 가운데 유일하게 출전한다.

김시우(27)와 이경훈(31)도 임성재와 함께 우승 사냥에 나선다. 미국 교포 케빈 나(한국 이름 나상욱)는 대회 2연패를 노린다. 타이틀 방어에 성공한다면 2015년 지미 웨커(미국)에 이어 7년 만의 대회 2연패다.



PGA 새해 첫 경기인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에서 8위에 오른 임성재. /연합뉴스

광주서 16일 생활체육 레슬링대회

전국 레슬링 동호인들의 축제인 생활체육레슬링대회가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멋진생활체육레슬링동호회는 오는 16일 광주 연주종합체육관에서 제1회 생활체육 레슬링대회를 개최한다.

모든 참가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백신 2차 완료자나, 경기장 입장 2일 이내에 음성확인증을 받은 자로 한정된다.

전국 레슬링 동호인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

며, 경기는 토너먼트 대전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인과 단체 입상자에게는 상금을 포함한 상장과 메달, 트로피가 수여된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정영호 광주멋진생활체육레슬링 동호회 대표는 "대한민국 레슬링의 저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며 "동호인 모두가 코로나 19로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그동안 담은 기량을 맘껏 발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권순우, 매치포인트 위기 딛고 대역전승

세계 32위 해리스에 2-1 승

권순우(53위·당진시청)가 매치 포인트 위기까지 몰렸다가 극적인 대역전승을 거뒀다.

권순우는 11일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열린 남자 프로테니스(ATP) 투어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2차 대회(총상금 43만530 달러) 이틀째 단식 본선 1회전에서 로이드 해리스(32위·남아공)를 2-1(5-7·7-5·6-4)로 물리쳤다.

지난주 애들레이드 인터내셔널 1차 대회에 이어 2주 연속 투어 대회 16강에 오른 권순우는 2회전에서 아르튀르 린더크네시(58위·프랑스)를 상대한다.

1세트 게임스코어 5-3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5-7로 내준 권순우는 2세트 매치포인트 위기에 몰렸다. 게임스코어 4-5로 뒤진 자신의 서브 게임에서 한 포인트만 더 내주면 그대로 경기가 끝나는 매치포인트를 상대에게 허용했다.

랠리가 오가다가 수세에 몰린 권순우가 힘겹게 받아넘긴 공이 공중으로 뜨며 키 193cm 장신 해리스의 스매싱 한 방이면 그대로 경기가 끝나는 듯했다.

그러나 해리스의 스매싱은 공이 라켓에 잘못 맞는 바람에 코트 옆으로 한참 벗어났고, 위기를 넘긴 권순우는 이후 내리 두 포인트를 따내 게임스코어 5-5를 만들었다.

로빙 볼의 스매싱에서는 가끔 실수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때 해리스의 실수는 그중에서도 어이없을 정도로 코트 옆으로 많이 벗어났다.

그 한 방으로 경기를 끝낼 수 있었던 해리스는 의기소침해진 반면 벼랑 끝에 탈출한 권순우의 기세가 살아났다.

권순우는 이후 승리랠리 두 게임을 더 따내 7-5로 2세트를 따냈고, 마지막 3세트는 4-4에서 상대 서브 게임을 브레이크하며 결국 2시간 22분 접전에서 이겼다.

권순우는 이날 승리로 지난해 US오픈 8강까지 오른 해리스를 상대로 맞대결 전적 3전 전승을 거뒀다. 2018년과 2019년 대만 켈린저에서 만나서도 권순우가 두 번 다 이겼다.

권순우는 이 대회를 마친 뒤 17일 호주 멜버른에서 개막하는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호주오픈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특송
- 2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특송 하우스 오브 구찌, 해피 뉴 이어,
- 3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클리포드 더 빅 레드 독
- 4관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 5관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특송
- 6관 경관의 피
- 9관 하우스 오브 구찌
- 7관 씨네캐슬 생2계더, 클리포드 더 빅 레드 독,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 8관 씨네캐슬 경관의 피, 킹스맨: 퍼스트 에이전트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1.04.(화)~ 29.(토)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2, 8379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60회 정기연주회
2022 신년음악회 Waltz & Rhapsody
일시 : 2022. 01. 14.(금)
장소 :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문의 : 062-524-5086